

# 안용복의 도일 사건과 일본에서의 행적\*

—안용복 도일루트와 에도행의 가능성에 관련하여—

송 휘 영\*\*

(e-mail : hysong@ynu.ac.kr)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일본 기록에 나타난 안용복의 행적 |
| 2. 안용복 피랍 사건과 도일의 개요 | 4. 맺음말                |

키워드 : 鬱陵島争界(Ulleungdo Jaenggye), 安龍福の渡日(Ahn Yong-bok's cross the sea to Japan), 江戸行き(Going to Edo), 書契(Official letter), 日本側の史料(Historical materials of the Japanese side)

## 1. 머리말

독도의 역사적 사실을 규명함에 있어 중요한 단서의 하나가 안용복의 피랍 및 도일 행적에 관한 기록이다. 과거 안용복의 사건에 대해 1693년의 사건을 「1차도일」, 1696년 사건을 「2차도일」이라고 규정해왔으나, 최근에는 1차도일을 「피랍」 사건, 2차도일을 「도일」 사건이라는 식으로 정리하고 있다.<sup>1)</sup> 그러나 안용복 사건을 두고 한일 간에는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일본의 학계와 「죽도문제연구회」<sup>2)</sup>에서는 안용복에 관한 한국 측 기록 즉 『숙종실록(肅宗實錄)』에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8A02929224)

\*\* 영남대학교, 연구교수, 한일관계사

1) 池内敏(2012) 『竹島問題とは何か』名古屋大学出版会, pp.152-153, 박병섭(2010), 「안용복사건과 돛도리번」, 『독도연구』제6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p.281-282을 참조.

2) 예를 들어,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는 안용복의 비변사에서의 진술을 ‘허구와 과장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여 그의 진술을 부정하고 있으며, 시모조 마사오(下条正男)는 안용복을 ‘모든 악의 근원’이라 하여 거짓말쟁이로 몰아넣고 있다.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p.167. 下条正男(2007) 「日本の領土「竹島」の歴史を改竄させた者たちよ」 『諸君』(2007.9.), p.99.

나타나는 안용복의 진술은 거짓말이라며 한국의 관찬기록조차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부정하고 있다. 반면에 대부분의 한국 측 연구에서는 이 기록에 근거하여 안용복 진술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안용복은 에도로 가서 막부장군의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서계를 받아왔으나 쓰시마번주에게 빼앗긴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sup> 이러한 간극은 양국 사료를 함께 펼쳐놓고 그 공통되는 부분을 교집합으로 하여 ‘안용복 진술’의 진위를 논증해야 하며, 역사적 사실의 시시비비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의 작업이 한일 양국의 학계에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2차에 걸친 안용복의 도일과정에서 일본 사료에 나타난 행적을 추적함으로써 그 일단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고의 과제는 첫째, 『죽도기사(竹島紀事)』 기록의 전개를 중심으로 『돗토리번사(鳥取藩史)』, 『인부역년대잡집(因府歷年大雜集)』, 『죽도고(竹島考)』, 『히카에초(控帳)』, 『어용인일기(御用人日記)』, 『어재부일기(御在府日記)』 등에 나타난 안용복의 행적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안용복의 일본에서의 행적을 추적하여 『숙종실록』의 안용복 공초 기록에서 나타나는 그의 에도행(江戶行)과 에도 막부로부터 서계를 받았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원래 『죽도기사』에 나타난 안용복의 행적에 대한 연표정리 작업과 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으나, 『죽도기사』에는 ‘울릉도쟁계(=죽도일건(竹島一件))’의 전모는 드러나지만 안용복의 행적에 대해서는 부분적 움직임밖에 포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돗토리번정자료」 등 당시 돗토리번의 기록을 추가하여 일본에서의 안용복의 행적을 정리하는 것으로 그 에도행의 진위를 검토하기로 한다.

## 2. 안용복 피랍 사건과 도일의 개요

### 2.1. 안용복 피랍사건과 그의 행적

여기서는 간단히 일본 사료에 나타난 안용복의 행적을 개관하기로 한다. 우선 안용복 사건이 처음 발생하는 1693년의 피랍사건의 개략을 보면 다음과 같

3) 예를 들어, 신용하(2000) 『한국의 독도 영유권 연구』경인문화사, p.9. 및 권오엽(2009) 『독도와 안용복』충남대학교출판부, pp.200-203.

다. 『인부역년대잡집』에 의하면, 윤번이었던 오야(大谷) 가문의 배가 1693년 4월 17일 오후 2시경(未刻)에 울릉도(죽도)에 도착하였다(<표2>참조, 이하 같음). 그러나 하마다우라(浜田浦)에서는 이미 많은 조선인이 들어와 있었으므로, 일행의 배는 도젠가사키(唐船方崎)에 배를 정박하였다.<sup>4)</sup> 이튿날 4월 18일 선장 구로베에(黒兵衛) 이하 7명의 인원으로 니시우라(西浦)를 수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기타우라(北浦)<sup>5)</sup>에서 박어둔을 만난다. 언어가 통하지 않은 박어둔은 안용복을 데리고 왔다.

오야 가문(大谷家)의 선원들은 두 사람을 피어 일본배로 데리고 갔고, 거기서 술잔치가 벌어졌다. 4월 18일 오후 1시반(未刻)경 안용복과 박어둔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오야가(大谷家)의 배는 두 사람을 연행하여 울릉도를 출발하였다.<sup>6)</sup> 4월 20일 두 사람을 태운 배는 후쿠우라항(福浦港)에 도착하였고 마츠에번에서 파견된 다이칸(代官)에 의해 취조를 받았다. 이들이 도착한 사실은 곧바로 돗토리번으로 보고되었다. 4월 23일 이들은 후쿠우라를 출발하여 4월 26일에 도젠(島前)에 도착, 27일에는 요나고(米子)에 도달하였다. 안용복과 박어둔은 오야가(大谷家)에 머물게 하고 이 사실은 아라오 슈리(荒尾修理)에게 보고되었다. 이 사실을 들은 아라오 슈리는 2명의 조선인에 대해 에도에서 지시가 있을 때까지 감시인을 붙이도록 지시한다. 돗토리번 요나고로부터 두 조선인에 대한 보고를 받은 막부는 5월 16일자로 조선인을 나가사키로 보내도록 지시를 내린다. 이 지시가 돗토리번에 도착한 것은 5월 26일의 일이었다.

5월 29일 요나고를 출발한 안용복은 6월 4일 돗토리 성하에 도착하였다. 6월 4일에서 6월 7일까지 돗토리에 머물고 7일 오전 9시에 돗토리를 출발하였다. 육로로 이송한 그들은 마침내 6월 30일 나가사키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돗토리에서 함께 간 사자 2명이 이들을 나가사키에 인도하고 7월 26일에야 돗토리로 돌아왔다.

돗토리에서 나가사키까지의 이송과정에서 안용복과 박어둔은 가마와 말을 타고 수십명의 수행원이 수행하는 등 귀빈으로 대접 받았다. 그러나 나가사키에 인도된 이후 두 사람은 태도가 돌변한 나가사키 측으로부터 죄수 취급을

4) 오카지마 마사요시(岡嶋正義)의 『竹島考』에는 3월 17일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정영미 역(2010) 『竹島考』, p.215.

5) 여기서 하마다우라(浜田浦)는 지금의 도동항이고, 니시우라(西浦)는 남양리 포구, 기타우라(北浦)는 현포항 부근으로 상정됨.

6) 송휘영 역(2014) 『장생죽도기』(『독도연구』17호), pp.371-373.

받아 억류되어 취조를 받았다. 나가사키에 머문 기간은 6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로 무려 2개월 3일 동안 억류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9월 2일 다시 쓰시마번(對馬島藩)으로 인도되었다. 쓰시마에서도 두 사람에 대한 태도는 나가사키와 마찬가지로였다. 여기서는 9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2개월간 체류하여 취조를 받았다. 4월 말 요나고와 돗토리를 거쳐 육로로 나가사키로 송환되는 6월 말까지의 2개월 정도의 기간 귀빈대접을 받았었다. 특히 안용복과 박어둔을 돗토리에서 나가사키로 보내지는 과정에서는 기간 동안은 수십명의 수행원을 붙여 가마에 태우고 호위하며 호송되었으므로 대단한 접대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당시 대중국, 대조선의 외교적 창구는 나가사키와 쓰시마였으며 이 경로를 거치지 않고 일본으로 입국한 안용복과 박어둔에 대해 나가사키와 쓰시마에서는 태도가 일변했던 것이다. 이 두 곳에서는 거의 죄인 취급과 같은 취조와 억류를 당하였으며 게다가 일부 돗토리번으로부터 받은 선물과 소지품마저 빼앗기기도 했다. 이들을 이송하기 위한 쓰시마의 배가 동래 왜관에 도착한 것은 11월 2일이였다. 다시 이곳에서 12월 10일까지 체류하다가 같은 날 동래부로 인도되었던 것이다.

### 3. 일본 기록에 나타난 안용복의 행적

제1차 안용복 사건(1693) 때 안용복이 에도(江戸, 현재의 동경, 막부 소재지)에 가서 관백(關伯)으로부터 “울릉도와 자산도(子山島,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어민들의 출어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서계(書契, 외교문서)를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한일 연구자 사이에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하나는 『속중실록』의 기록처럼 안용복이 에도에 가서 서계를 받았다는 것<sup>7)</sup>이고, 다른 하나는 돗토리 번(鳥取藩)의 기록에서 보면 에도행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에도로 가지 않았다는 것<sup>8)</sup>이다. 권오엽 등의 연구에서는 안용복이 에도에 가서 서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송병기는 제2차 안용복의 도일에서 에도에 갔다고 주장한다. 일본 연구자 가운데 다보하시 기요시는 관백이 “울릉

7) 전계 권오엽(2009)을 참조.

8) 전계 池内敏(2012)를 참조.

도를 조선령임을 인정”했으며, “안용복 진술은 대체로 사실”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계에서는 안용복이 돗토리 번으로부터 서계를 받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에도 막부에 가서 서계를 받았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림1> 안용복의 제1차 도일 (1693년) 행적



주: 박병섭(2010)에서 인용

한일 양국의 관찬기록을 비교하여 공통되는 사실들을 정리해보면 안용복의 에도 행의 가능성이 낮다. 만약 그가 서계를 받았다면 돗토리 성에서 번주(藩主)로부터 받았을 수는 있다. 『인푸년표(因府年表)』 등에서 돗토리 번에서의 안용복의 행적을 보면 에도에 갈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다. 요나고(米子)에서 에도까지는 육로로 약 710km 정도이고, 돗토리에서 에도까지는 약 650km이다. 당시 일반인의 1일 이동 거리는 약 32~40km라고 한다. 그 중간치를 잡아

36km의 속도로 돗토리에서 에도로 이동한다면 18일 걸리고, 왕복으로 36일이 나 소요된다. 빠른 걸음으로 왕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달은 소요된다. 참고로 에도시대 파발꾼인 히카쿠(飛脚)가 교토(京都)에서 에도까지 3~4일, 돗토리 성에서 에도까지는 5~6일 정도 걸렸다고 한다. 만일 안용복이 에도에 갔다면 돗토리 번에서의 그의 행적 기록에서 적어도 30일 정도의 공백이 있어야 한다.

돗토리 번에서 안용복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인푸년표(因府年表)』, 『인부역년대잡집(因府歷年大雜集)』, 『히카에초(控帳)』 등에서 날짜별로 그의 행적을 추적해보자. 우선 오야(大谷) 가의 선원들에게 납치된 안용복과 박어둔은 1693년 4월 20일 오키국(隱岐國) 도고(島後) 후쿠우라(福浦)에 도착한다. 그 이후 도젠(島前)을 거쳐 4월 27일 요나고(米子)에 도착, 오야가(大谷家)에 머물며 외출이 금지된다. 다시 5월 11일 마치카이쇼(町会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5월 16일 에도막부로부터 육로로 나가사키(長崎)에 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5월 29일 아침 요나고를 출발하여 6월 1일 저녁에 돗토리에 도착한 후 아라오야마토(荒尾大和) 댁에 머문다. 돗토리 성하(城下)에서 조회를 받은 다음 6월 7일 오전에 돗토리를 출발하여 같은 달 30일 나가사키에 도착한다. 돗토리 번의 요나고와 돗토리에 머문 2개월 10일 동안 안용복의 행적에 10일 이상의 공백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안용복이 1차 도일에서 에도에 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서계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에도 쇼군(將軍)의 서계가 아니라 돗토리 번주에게서 받았을 것이다.

제2차 안용복의 도일은 이렇다. 1696년 5월 18일 오키섬 니시무라(西村)에 도착하여 같은 달 20일에 오쿠무라(大久村) 항구를 거쳐 6월 4일 아카사키(赤碕)에 다다른다(<표3>을 참조, 이하 같음). 6월 12일 가로(賀露) 도젠지(東善寺)로 가고, 6월 21일 마치카이쇼(町会所)에서 조서를 받은 후 아오시마(青嶋)에 유배된다. 아오시마의 조선인에 대한 기록은 그 후 7월 22일에 보인다. 이 동안 한 달이 공백이 있다. 이 기간 동안 돗토리 번과 에도 사이에 보고와 지시, 나가사키와의 연락도 이루어졌으며, 안용복은 여전히 아오시마에 머물렀다. 7월 24일에는 오쿠보 가가노카미(大久保賀加守)가 ‘죽도도해금지’의 봉서(奉書)를 오야(大谷)·무라카와(村川) 양가에 전달하도록 거듭 지시하였고, 안용복에 대해서는 그를 나가사키로 보내지 말고 직접 귀국시키도록 지시했다. 그해 8월 6일 안용복은 가로항(加路港)을 출발하여 강원도 양양으로 향했다. 안용복의 2

차 도일에서도 에도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낮다.

<그림2> 안용복의 제2차 도일 (1696년) 행적



주: 박병섭(2010)에서 인용

제2차 도일에서는 에도 관백은 물론 돗토리 번주 조차도 만나지 못했다. 안용복이 에도에 가서 쇼군의 서계를 받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다. 숙종실록에 있는 안용복 공술에서 서계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제1차 도일에서 돗토리 번주에게서 받았을 수는 있다. 그러나 돗토리 번주가 서계를 발급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가 하는 점과, 돗토리 번주가 서계를 발급하였다면 돗토리번의 공식기록에 남아 있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사실이 적혀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이 규명되어야 한다.

## 4. 맺음말

본고에서는 『죽도기사』, 『히카에초』, 『어용인일기』, 『어재부일기』 등 일본 고문서에 나타난 안용복의 행적을 연표로 정리하여 보았다. 이 연표는 『숙종실록』, 『비변사등록』, 『만기요람』 등 국내 고문서에서 나타난 안용복 기록과 대조해보면 한층 더 안용복 사건의 보이는 진실을 규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안용복 진술에 관한 진위는 일본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소」의 견해와 일본 외무성의 공식 견해인 「죽도(독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sup>9)</sup>에서 거의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부산에서 출선하여 납치사건으로부터 1년이란 시간이 걸려 비로소 안용복은 쓰시마번으로부터 동래부로 인도되었다. 이 동래부에서의 공술은 당시 ‘해금(海禁)’정책으로 도해를 금지하던 울릉도와 해외(일본)로의 도항은 필시 범법행위였으므로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었다.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안용복은 일부 허위진술을 포함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연구에서는 안용복 진술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며, 일부 허위진술을 빌미로 안용복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여 안용복 진술의 전부를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일 양국의 사료를 대비하여 검토해보면 공통되는 부분이 적잖이 존재한다.

한국의 안용복 연구가 일방적으로 국내 사료에 국한하여 주장하는 것을 지양하고 일본측 사료도 함께 검토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내에는 수많은 독도연구자와 안용복 연구자가 존재하지만 아직 한일 양국의 사료에 나타나는 안용복 진술의 진위에 대해 제대로 분석된 논문은 단 1편도 없는데도 『숙종실록』을 바탕으로 일방적 논조의 주장은 난무하다. 이제는 안용복과 관련된 일본의 왜곡 논리를 하나둘 밝혀내고 영웅화된 우리의 안용복상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는 일본의 안용복상을 사료와 기록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일본의 거짓과 허구성에 대해 명확하게 그 논리를 역사적 사료에 입각하여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9) 「竹島」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검색일2016.12.15.)

<표1> 1692년(元祿5) 조선배와 일본배의 조우

년	월일	내용	출전
1692 (元祿5)	2월 11일	무라카와(村川)의 배 요나고 출항	『控帳』2月11日条
	2월 21일	조선 배 11척 출선	『控帳』2月21日条
	2월 30일	오키(隱岐) 후쿠우라(福浦) 도착	『鳥取藩史』
	3월 23일	조선 배 5척 울릉도(竹島) 표착	『鳥取藩史』
	3월 24일	후쿠우라 출발	『鳥取藩史』
	3월 26일	울릉도(죽도) 안의 이카지마(伊島)에 착안. 전복을 가져간 상태를 발견	『鳥取藩史』
	3월 27일	울릉도 하마다우라(浜田浦)에서 배 2척 조선인 2명 정도 발견, 오사카우라(大坂浦)로 돌아서 통역(通詞)과 회담, 조선인의 설명을 들음. 이전 갓추어둔 도구·배 등은 조선인이 사용. 출선.	『鳥取藩史』
	4월 5일	요나고 도착	『鳥取藩史』
	5월 2일	에도 와다 사문(和田佐門), 막부는 조선인이 섬에서 돌아간다면 상관없다는 뜻을 돛토리(飛脚)에 보냄	『控帳』元祿5年5月2日条
5월 10일	와다(和田)의 서신 돛토리번 가로(家老)가 수취	『控帳』元祿5年5月2日条	

<표2> 1693년(元祿6) 안용복 「납치」사건

년	월일	내용	출전
1693 (元祿6)	2월 15일	오야(大谷)의 배 요나고 출선	『因府歷年大雜集』
	2월 17일	이즈모국 구모즈(雲津)에 도착, 수일 체재	『因府歷年大雜集』
	3월 2일	이즈모 출선, 오키국 도젠(島前)에 도착	『因府歷年大雜集』
	3월 10일	오키 도고(島後) 후쿠우라(福浦)에 도착	『因府歷年大雜集』
	3월 27일	안판산 등 부산을 출발, 같은 날 울릉도(竹島) 도착	『因府歷年大雜集』
	4월 16일	후쿠우라를 출발	『因府歷年大雜集』
	4월 17일	오후 2시쯤(未刻), 죽도에 도착. 하마다우라에는 조선인이 많았으므로 도젠가사키에 배를 댐.	『因府歷年大雜集』
	4월 18일	아침, 선장 구로베에 이하 7명이 니시우라(西浦)를 수색. 기타우라(北浦)에서 조선어민 1명을 발견. 이 자를 데리고 오펜구로 돌아옴. 역관과 또 한명을 배로 불러 심문함. 급년의 어업을 포기하고 미각(未刻)에 죽도(울릉도)를 출발.	『因府歷年大雜集』
	4월 20일	오키 도고 후쿠우라에 도착. 마즈에번 역원에 의한 조사, 조선인에게 역원이 술과 음식을 보냄.	『因府歷年大雜集』
	4월 23일	후쿠우라(福浦) 출발	『因府歷年大雜集』
	4월 26일	도젠(島前) 도착	『因府歷年大雜集』
	4월 27일	요나고(米子) 도착. 오야가(大谷家)에 2명을 두고, 아라오 슈리(荒尾修理)에게 보고.	『因府歷年大雜集』
	4월 28일	요나고에 조선인을 연행한 사실이 아라오 슈리에게 도	『控帳』4月28日条

		착함. 에도에 보고를 위해 파발꾼을 보냄. 에도에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오야 댁에 두고, 감시자를 붙이도록 지시함.	
5월 11일		조선인의 외출금지, 술은 2되(升) 이하로 지시	『控帳』4月28日条
5월 11일		오야 토베에(大谷藤兵衛),야밤에 돛토리에 도착	『控帳』4月28日条
5월 12일		오야 토베에(大谷藤兵衛), 선장 2명 카이쇼에서 사정청취	『控帳』4月28日条
5월 16일		막부, 조선인을 나가사키에 보내도록 지시함.	『鳥取藩史』
5월 22일		막부, 간조가시라 마츠다이아 미노노카미에게 죽도에 관한 심문서에 대한 1차 회답을 내림.	『鳥取藩史』
5월 26일		조선인을 나가사키에 보내라는 지시가 도착함 나가사키로의 이송방법, 사자 등을 결정	『控帳』4月28日条
5월 28일		조선인 돛토리에서 이송할 때에 구경에 주의하도록 가츄 및 대로변에 포고령 내림	『控帳』4月28日条
5월 29일		조선인 아침에 요나고를 출발	『控帳』4月28日条
6월 1일		조선인, 저녁에 돛토리에 도착. 아라오 야마토(荒尾大和) 댁에 숙박	『控帳』4月28日条
6월 2일		시키부(式部)·쇼칸(将監)·히무카(日向) 아라오 댁에서 조선인 2명을 면회. 그 뒤 마을회관(会所)으로 보냄.	『控帳』4月28日条
6월 4일		조선인 돛토리에 도착	『因府年表』同日条
6월 5일		신노스케(辰之助=池田清定) 조선인 구경을 위해 마을회관(町会所)로 감.	『因府年表』同日条
6월 6일		나가사키에 보낼 사자 야마다(山田)·히라이(平井)로 하고, 나가사키 봉행에게 보내는 서신을 논의	『控帳』4月28日条
6월 7일		조선인 오전 9시(辰下刻)에 돛토리를 출발	『控帳』4月28日条
6월 7일		막부의 죽도도해에 관한 질의서에 대한 회답을 에도에 보냄. 같은 문서를 사자 2명에게도 보냄.	『控帳』4月28日条 『因府年表』同日条
6월 27일		막부 간조가시라(勘定頭) 마츠다이아 미노노카미(松平美濃守)에게 제2차회답을 보냄	『鳥取藩史』
6월 30일		조선인 나가사키에 도착	『控帳』4月28日条
7월 18일		사자 2명 나가사키에 무사히 도착. 인도 완료의 보고가 돛토리에 도착.	『控帳』4月28日条
7월 24일		사자 2명 돛토리로 돌아옴	『鳥取藩史』
7월 25일		사자 2명 돛토리로 돌아옴	『因府年表』同日条
9월 19일		사자 2명, 동행 의사에게 포상함	『控帳』4月28日条

<표3> 1694년(元祿7)-1696년(元祿9) 일본의 죽도도해 관련

년	월일	내용	출전
1694 (元祿7)	5월 9일	죽도로 출선을 하지만 난풍 때문에 되돌아옴. 이 일이 돛토리변의 가로에게 알려짐.	『控帳』
	11월 26일	오야(大谷)·무라카와(村川)이 도해의 비용으로 번에 자금(拜借金) 대출을 신청하나 수리되지 않음.	『控帳』
1695	봄	죽도도해를 하였으나, 조선인이 들어와 있어 돌아옴.	『鳥取藩史』

(元祿8)		돌아오는 길에 송도에서 전복을 채취하여 돌아옴.	
	8월 30일	소 요시자네(宗義真) 일행 에도 참근(江戸參觀)을 위해 에도로 출발	『竹島紀事』
	10월 15일	소 일행 에도 도착	『竹島紀事』
	12월 11일	막부가 쓰시마번과의 협의 중에 송도(독도)의 존재를 처음 인식	『竹島紀事』元祿8年10月11日条
	12월 24일	막부 로쥬(老中) 붕고노카미(豊後守) 죽도에 관한 '7개조 질의문'을 돗토리번의 에도 번저에 문의함	『鳥取藩史』
	12월 25일	돗토리번저가 '7개조 질의문'에 대한 답변. "죽도·송도 이외 돗토리번 소속이 아니다"라고 답변함	『鳥取藩史』
1696 (元祿9)	1월 25일	막부 로쥬의 송도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 제출. 송도의 위치와 거리에 대한 5개조의 답변(覚)과 별지에 '송도는 (일본의) 어느 지방에도 속하는 섬이 아니다'고 답변.	『鳥取藩史』
	1월 28일	「죽도도해금지령」 쓰시마번과 돗토리번에 하달	『御用人日記』
	2월 29일	돗토리번이 받은 막부의 「죽도도해면허」 반납	『磯竹島覚書』
	8월 1일	죽도도해금지령의 봉서 오야(大谷)·무라카와(村川) 양가에 전달	『御用人日記』

<표4> 1696년(元祿9) 안용복의 2차도일

년	월일	내용	출전
1696 (元祿9)	3월 8일	안용복 일행, 조선에서 아침밥을 먹은 후 출선. 같은 날 저녁에 죽도(울릉도)에 도착(13척의 배에 9인, 10인, 11인, 12~3인 정도 승선)	『朝鮮舟着岸一卷之覚』
	5월 15일	죽도(울릉도)를 출발하여 같은 날 송도(독도)에 도착	『朝鮮舟着岸一卷之覚』
	5월 16일	송도를 출발	『朝鮮舟着岸一卷之覚』
	5월 18일	아침에 오키섬(隱岐島)의 니시무라(西村)에 도착. 니시무라에서 나카무라(中村)로 입항	『朝鮮舟着岸一卷之覚』
	5월 19일	오쿠무라(大久村)의 가요이 포구에 정박	『朝鮮舟着岸一卷之覚』
	5월 20일	안용복 일행 오키섬 오쿠무라(大久村) 항구에 도착	『御用人日記』 6月13日条
	6월 2일	오키 대관이 돗토리에 조선배 내항을 보고	『御用人日記』 6月13日条
	6월 4일	조선배 아카사키(赤崎) 도착	『御用人日記』 6月13日条
	6월 5일	돗토리에 조선배 아카사키 착안의 보고. 선원 야마자키 슈메(山崎主馬)를 아카사키에 파견. 군봉행 2명에게 감시를 지시.	『控帳』6月5日条
	6월 12일	조선인의 견에 대해 아라오 시마(黄尾志摩) 댁에서 모임	『控帳』6月5日条
	6월 12일	조선배를 가로(賀露)로 옮기고 도젠지(東善寺)를 숙소로 함.	『竹島考』
	6월 13일	막부 로쥬 오쿠보 가가노카미(大久保加賀守)에게 내항의 보고가 전달	『御用人日記』 6月13日条

6월 14일	조선인 아오야(靑谷)에서 가로 도젠지로 옮김	『控帳』6月5日条
6월 15일	조선인의 건을 의논하기 위해 아라오 시마(荒尾志摩) 맥에서 모임. 가로에서의 대응을 군봉행에게 지시.	『控帳』6月5日条
6월 21일	가로에서 초카이쇼(町会所)로 옮김	『竹島考』
6월 22일	막부 로쥬 오쿠보 가가노카미에게 조선인이 아오야 센넨지(尊念寺) 체재중이라는 2번째 보고가 전달. 나가사키 봉행 스와 헤이부(諏訪兵部)에게도 같은 보고 전달.	『御用人日記』 6月13日条
6월 23일	오쿠보 가가노카미, 기키야쿠 요시다 헤이마(吉田平馬)를 불러 쓰시마번 역관 파견의 취지를 전함	『御用人日記』 6月13日条
6월 24일	오쿠보 가가노카미 기키야쿠 요시다 헤이마에게 서신을 건넨	『御用人日記』 6月13日条
6월 26일	에도에서 돗토리로 조선인에 관한 파발꾼을 보냄	『御用人日記』 6月13日条
7월 16일	이국선에 대한 막부봉서, 도사공(船手)이 바닷가마다 포고하도록 지시	『控帳』6月5日条
7월 19일	번주 츠나키요(綱清) 귀국	『控帳』6月5日条
7월 22일	아오시마(靑嶋)의 조선인	『御用人日記』 6月13日条
7월 24일	에도 오쿠보 가가노카미, 죽도도해금지의 봉서를 오야·무라카와에게 전달하도록 거듭 지시함	『竹島紀事』
8월 1일	요나고 오야·무라카와에게 죽도도해금지의 봉서 사본을 전달하도록 아라오 슈리에게 건네줌	『控帳』6月5日条
8월 1일	에도, 오쿠보 가가노카미, 조선인을 나가사키에 보내지 않고, 직접 귀국시키도록 지시	『御用人日記』 6月13日条
8월 4일	돗토리번의 히라이 긴자에몽·(平井金左衛門)·츠지 반양(辻晩庵)이 아오시마로 가서 조선인에게 귀국해야 한다고 전달	『御用人日記』 6月13日条
8월 6일	조선배가 가로를 출항한 것을 히라이·츠지에게 보고. 동일 히로사와 한에몽(広沢半右衛門)에게 가로 출항의 사실을 에도에 보고하도록 사자에게 명함	『御用人日記』 6月13日条
8월 18일	쓰시마번의 사자·역관이 모치가세(用瀬)까지 왔으나 돌려보냄	『御用人日記』 6月13日条
8월 19일	18일 모치가세(用瀬)의 건, 이날 가로에게 기록됨	『控帳』6月5日条
9월 19일	가로 도젠지가 아오야의 의사 사이토 도쿠모토(斎藤徳元)에게 조선인 응접에 대해 금은을 보냄	『控帳』6月5日条
11월 23일	무라카와에 대해 요나고 소금세(塩運上 <sup>10</sup> )를 인정함	『控帳』6月5日条

10) 운조(運上)란 에도시대의 세금. 중세에는 장원의 연공을 영주의 아래로 옮기는 일 즉 공물을 상납하는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었으나, 중세 말기 무렵부터 과세의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음. 에도시대에 와서는 소상공에 대한 잡세의 일종이란 의미로 정착되었음. 근세에서는 상업, 공업, 어업, 수렵업, 운송업 등 각종의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부과되었음. 塩運上은 소금에 대한 세금.

## 【참고문헌】

- 송휘영(2010) 「일본의 독도에 대한 “17세기 영유권 확립설”의 허구성」 『민족문화논총』 4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p.35-70.
- \_\_\_\_\_ (2011) 「울릉도쟁계의 결착과 스야마 쇼에몽」 『日本文化學報』제49호, 한국일본문화학회, pp.263-286.
- 이케우치 사토시(2010) 「일본 에도시대의 다케시마-마즈시마 인식」 『독도연구』제6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p.199-221.
- 박병섭(2010) 「안용복사건과 돗토리번」 『독도연구』제6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p.281-341.
- \_\_\_\_\_ (2009)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권오엽(2009) 『독도와 안용복』, 충남대학교출판부
- 권오엽 편주(2011) 『일본 고문서의 독도 岡嶋正義古文書』, 도서출판 선인
- 송병기(2007)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판부
- 신용하(2000), 『한국의 독도 영유권 연구』경인문화사
- 田保橋潔(1931) 「鬱陵島그 發見과 領有」 『靑丘學叢』3号, pp.19-20.
- 池内敏(2012)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 『肅宗實錄』
- 『因府年表』
- 『因府歷年大雜集』
- 『御用人日記』
- 『控帳』
- 『大谷家古文書』
- 『鳥取藩政資料』, 鳥取県立博物館
-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 (1696年)
- 岡嶋正義, 『竹島考』, 1828 (경상북도 사료연구회 역, 『竹島考 上·下』, 2010).
- 越常右衛門, 『竹嶋紀事』, 対馬藩, 1726 (경상북도 사료연구회 역, 『竹嶋紀事』 I · II, 2013).
- 『近世資料』 『鳥取県史』 第7卷 (1976年)
- 『竹島渡海禁止并渡海沿革』 『鳥取藩史』 第6卷 (1971年)
- 『朝鮮国部百十三』 『通航一覽』 卷137 (大正2年)
- 『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向』 『公文録』 内務省之部, 明治10年(1877.3.17)
- 『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 『大日本外交文書』, 明治3年(1870.4)
- 『竹島』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 (검색일2016.12.15.)
- 『竹島=独島論争(資料集)』 <http://www.kr-jp.net/> (검색일2016.12.15.)
- 『竹島問題』 [http://www.geocities.jp/tanaka\\_kunitaka/takeshima](http://www.geocities.jp/tanaka_kunitaka/takeshima) (검색일2016.12.15.)
-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 (검색일2016.12.15.)

논문 투고 일자 : 2016. 12. 25.

논문 심사 일자 : 2017. 01. 21.

게재 확정 일자 : 2017. 01. 22.

---

 < 要旨 >
 

---

 安竜福の渡日事件と日本での行績  
 -安竜福の渡日ルートと江戸行きの可能性を中心として-

宋彙榮

本稿の目的は、二度にわたって発生した安竜福の渡日事件、すなわち鬱陵島争界=竹島一件を触発させた安竜福の渡日と日本での行績を追跡することによって、鬱陵島争界に関わるいくつかの争点の実体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ある。そしてその具体的な課題は、第一に、日本史料の記録もついで安竜福の行績を整理し、第二に、韓国の官撰誌『肅宗実録』にあらわれる彼の江戸行きと江戸幕府から書契を受けたのかという点を検証することである。

鳥取藩から江戸までの距離は、約700kmで江戸行きをするためには約一ヶ月の時間が必要である。しかし、安竜福の「第一次渡日」と「第二次渡日」の記録を検討してみれば、一ヶ月以上の空白が生じない。すなわち、史料によれば鳥取から安竜福が江戸へ行った可能性はほとんどない。したがって、江戸幕府の書契は受けることはなかったといえる。しかし安竜福自身が鳥取城を江戸城と間違えて認識した可能性もある。もしも安竜福が書契を受けたとするなら鳥取藩主から受けることはできたかも知れない。しかし、『肅宗実録』の安竜福の供述記録のとおり、対馬島藩主に書契を奪われたとするなら、これについての資料が提示されねばならない。これから韓国での安竜福研究は一方的に国内史料のみに依存して主張するのではなく、それを日本側の史料と対照し、両者を検討して分析する作業が必要といえる。

 Ahn Yong-bok's Cross the Sea to Japan and Contributions of His Behavior  
 -concerning the possibility of his journey to Edo-

Song, Hwi-Young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e reality of few points of discussions on Ulleungdo-Jaenggye with Ahn Yong-bok's behavior during the two time journey to Japan which raised the event of Takeshima Ikken problem. First, this paper review Ahn Yong-bok's trait of behavior the based on Japan materials, and secondly tried to prove the reality of receiving the official letter from Edo Bafuku during his journey to Edo which described in Sukjong-silrok of Korean official record.

The distance from Tottori to Edo is about 700km and takes a month to reach. However, looking at the record of his first and second journey to Japan, there is no enough month time gap of a month, which explains no possibility of Ahn Yong-bok's journey from Tottori to Edo. So he did not receive the official letter from Edo Bafuku.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of his confusion on Tottori Castle to Edo Castle. If he had received the official letter, he might have received it from Tottori Han Governor. But the historical records on his deprived letter in the record about Ahn Yong-bok in Sukjong-silrok of Korean official record, the record should be proved. It should be recommended that the research and analysis on the historical records based on Japan part is necessary with Korean part as well.